

중일전쟁 시기 김사량 소설과 세대론적 성찰

— 『낙조』, 「향수」 분석을 중심으로

이 은 솔*

요약

김사량의 『낙조』(『조광』 1940.2~1941.1)와 「향수」(『文藝春秋』, 1941.7)는 중일 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변기에 3·1운동의 기억을 소환하여 과거와 현재, 구세대와 신 세대의 문제를 다룬다. 두 작품은 역사적 사건을 매개로 한 세대론적 성찰이라는 공통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창작 언어 및 발표 지면의 국적을 기준으로 서로 유리된 채 연구되어왔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두 작품을 연속선 상에서 살펴본다.

『낙조』는 기존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아버지 중심 서사를 탈피해 어머니 '산월'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모순을 형상화한다. 평양 기생 출신 산월은 증오하던 친일 양반 윤성효의 집안에 편입되며 정체성의 분열을 겪다가 1919년 3월 1일 밤에 윤성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이는 신세대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며, 아버지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과정을 그린 기존 서사와 차별화된다. 특히 산월의 죽음을 '용감한 선택'으로 재해석하는 아들 수일의 시선은 가족사적·역사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암시한다.

「향수」는 3·1운동 후 중국으로 망명한 '가야' 부부의 몰락을 조명한다. 이 작품은 1940년을 전후로 조선 문단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신세대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에도 그 상관관계가 명확히 지적된 바 없다. 본고는 조선의 신세대론을 '동아신질서' 구상 속에서 조선(인)의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담론 실천으로 이해하고, 「향수」 또한 신세대론의 문학적 반영으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특히 「향수」의 결말이 신세대론에서 비가시화되던 중국(인)의 존재를 부각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협력과 저항이라는 기존의 독법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은 ‘동아’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그 주체화 경로를 일제하에서 신음하는 중국인 빈민과 조선인 망명객으로 우회하면서 제국주의 담론의 경계를 넘어서려 시도한다.

주제어 : 김사량, 중일전쟁, 가족사연대기 소설, 신세대론, 『낙조』, 『향수』

목차

1. ‘역사의 전환기’와 3·1의 기억
2. 가족사연대기 소설 속 어머니의 위치
3. 조선의 신세대 논쟁과 ‘향수’라는 응답
4. 나가며

1. ‘역사의 전환기’와 3·1의 기억

김사량(金史良, 1914~1950)은 평양 출신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평론가로 1931년 동맹휴교 사건으로 인해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한 후 1933년 일본으로 넘어가 구제(舊制) 사가고등학교와 동경제대 독문과를 거쳤다. 문학가로서의 본격적인 이력은 1936년 10월 동인지 『제방』에 발표한 일본어 소설 「토성랑(土城廊)」(『堤防』, 1936.10)으로 시작했으나 그 이전부터 이미 30편에 가까운 동시, 동화를 조선어로 창작했다.¹⁾ 그는 주로 『문예수도(文藝首都)』, 『문예춘추(文藝春秋)』 등 일본의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했는데, 단편 「빛 속으로(光の中に)」(『文藝首都』, 1939.10)가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으로 뽑히는 등 성공적으로 일본 문단에 정착했다. 따라서 그간의 김사량 연구는 조선인 작가의 일본어 소설 창작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왔으며, 조선 문단과의 연관 속에서 검토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김사량은 일본 문단에서 활동하면서도 「조선문학풍월록」(『文藝首都』, 1939.6), 「조선의 작가를 말한다」(『モダン日本』 朝鮮版, 1939.11), 「

1) 김사량의 작품 연보는 곽형덕, 『김사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을 참조함.

조선의 지식층과 문화」(『大陸』, 1940.9) 등의 평론을 꾸준히 발표하며 조선 문단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아울러 1940년 2월부터 『조광』에 장편소설 『낙조』를 발표하면서 ‘가족사 연대기소설’이라는 식민 말기 조선 문단의 문학론적 탐색에 동참했다.²⁾

중일전쟁이 나날이 격화되던 1940년대 초는 식민지 조선에서도 ‘역사의 전환기’라 호명될 만한 결정적 시간이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은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며 1938년 10월에는 중국의 주요 거점인 우한, 광둥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조선인의 정세 인식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1930년대 중반까지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조선인의 사상전향이 중일전쟁 개시 이후 대거 증가한 것이다.³⁾ 치안유지법으로 투옥되었던 인정식은 ‘동아의 대세’가 일본에 기울었다는 사실은 “객관적 정세를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모든 지성의 결론”이라는 논지의 글을 발표했다.⁴⁾ 특히 1938년 11월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수상이 제2차 성명에서 발표한 ‘동아신질서’ 구상은 식민지 조선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의 국민정부가 우한, 광둥을 잃은 후에도 예상외로 거세게 항전을 이어가자 고노에 수상은 제1차 성명의 강경했던 입장을 버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만주국, 중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앞다투어 시대를 진단하고 급변

2) 정하늬, 「1940년 전후 가족사 소설의 세대론적 고찰 - 한설아의 『탑』과 김사량의 『낙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이해령, 「1930년대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형식과 이데올로기」, 『상허학보』 10, 2003 등을 참조할 것.

3) 중일전쟁 시기 사회주의자 전향에 대해서는 홍종욱의 제3장 「해방을 전후한 사회주의자의 모색과 실천」, 『민족과 혁명 - 식민지 사회주의의 이념과 실천』, 역사비평사, 2025를 참조했다. 1938년 말에 총독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재감 사상범 1,298명 중 전향자는 776명이며, 그중 중일전쟁 후 약 1년 동안 전향 의사를 밝힌 자가 427명이었다. 전향의 규모뿐만 아니라 동기도 크게 달라졌다. 1930년대 중반까지 전향자들은 ‘가족애’, ‘구급에 의한 후회’ 등을 전향 동기로 밝혔으나, 중일전쟁 시기에는 ‘시국 인식’, ‘국민적 자각’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한다. 홍종욱, 앞의 책, 123면.

4) 인정식, 「아등(我等)의 정치적 노선에 관해서 동지 계군에게 보내는 공개장」, 『삼천리』, 1938.10-11. 홍종욱, 앞의 책, 128면에서 재인용.

하는 동아시아 정세 안에서 조선이 취할 태도를 논구했다. 동아신질서 구상이 조선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과 조선은 내선일체라는 ‘피의 결합’을 통해 일본 내부에서 지위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으나⁵⁾ 대세는 점차 동아신질서에의 편승으로 기울었다.

이 시기 발표된 소설에서 정복욕에 들떠 제국의 중심부로 떠나거나 만주 개척을 결심하는 인물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나, 한편으론 과거 혁명 사상의 세례를 받은 인물들이 마치 수재(水災)와 같은 “동양의 그 사변”의 몰살에 휩쓸려 역사의 뒀안길로 스러져갔다.⁶⁾ 반면 김사량이 택한 전략은 일견 예외적인데, 그는 나아갈 길을 정하기 전 과거를 되짚어보기도 하듯 조선어 소설 『낙조』와 일본어 소설 「향수(鄉愁)」에 연달아 3·1운동을 소환한다. 그런데 두 작품을 3·1운동의 후일담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권보드래를 제외하고는⁷⁾ 김사량의 『낙조』와 「향수」를 함께 살피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애초에 김사량의 조선어 소설과 일본어 소설을 연속선 상에서 읽는 경우조차 많지 않다.

『낙조』는 작가 김사량이 일본어 소설 창작에 주력하던 시기에 쓰인 조선어 장편이라는 독특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대상에서 약간 빗겨 있었다. 1부를 끝으로 연재가 중단되어 작품의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수」는 김사량의 일본어 소설이 소개된 2000년대 이후 많은 연구자의 이목을 끌어들였음에도, 이상하리만치 같은 시기 조선 문단에서 발표된 다른 소설들과의 연관 속에서

5) 일본의 동아신질서 구상에 대한 식민지 조선의 담론에 대해서는 차승기, 「추상과 과잉 - 중일전쟁기 제국/식민지의 사상연쇄와 담론정치학」, 『상허학보』 21, 상허학회, 2007을 참조할 것.

6) 채만식, 「냉동어」, 『인문평론』 1940.4~5; 정비석, 「삼대」, 『인문평론』, 1940.2; 백철, 「전망」, 『인문평론』, 1940년 1월호 230면.

7) 권보드래, 「3·1운동과 “개조”의 후예들 - 식민지시기 후일담 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 5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이 작품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드물다. 동아신질서 구상에 대한 작가 김사량의 협력 여부와 작품 속 인물들의 진향 문제를 중심으로 매우 섬세한 해석들이 축적되어왔음에도 그러하다. 특히 1939~1940년 조선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신세대론’과의 연관 속에서 이 작품을 읽는 시도가 없었던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수」는 북경을 배경으로 중일전쟁 시기 방황하는 옛 혁명가 혹은 전향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전략해버린 구세대와 그들을 구원하려는 신세대라는 주제의식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 문단을 휩쓸었던 세대론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영향 관계가 명확히 지적된 바 없다. 이에 본고는 김사량의 작품이 창작 언어 및 발표 지면의 국적을 기준으로 서로 유리된 채 연구되어왔다는 문제의식하에 조선어 소설 『낙조』와 일본어 소설 「향수」를 연속선 상에서 살펴보려 한다.

2. 가족사연대기 소설 속 어머니의 위치

김사량의 장편소설 『낙조』는 1940년 2월부터 1941년 1월까지 1년간 『조광』에 연재된 작품이다. ‘제1부 윤씨네 사람들’을 마친 후 연재를 재개하지 않아 미완으로 남아 있다.⁸⁾ 『낙조』에 관한 연구는 수가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축적되고 있는데, 우선 장사신·지명현, 「재일 한민족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연구」(『한국현대문학회』, 2007)에서 일찍이 김사량의 『낙조』에 나타난 가족 형상을 검토한 바 있다. 이후 『낙조』를 가족사연대기 소설로 보고 김남천의 『대하』 혹은 한설야의 『탑』과 함께 읽는 연구가 발표됐다. 이들 연구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로 표상되는 역사 그 자체와의 대결이라는 구도 속에서 1940년대 가족사연대기 소설을 독해하면서

8) 『낙조』의 마지막 연재분(『조광』 1941년 1월호)에 ‘제1부·終回’라고 밝혀두고 있다.

여성 인물들의 역할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긴다.⁹⁾ 다만 정하늬의 연구는 가족사연대기 소설을 당시 조선 문단의 주요 담론이었던 세대론과의 연관 속에서 독해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주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다카하시 아즈사의 「김사랑과 여성 - 중일전쟁기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상허학보』, 2023)는 김사랑 소설 속 여성 인물 표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낙조』를 대상 텍스트로 삼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시기에 발표된 김사랑의 일본어 소설 전반을 검토했으며, 조선인 남성의 ‘국민’됨을 다루며 여성 인물을 후경화하던 작풍 경향이 점차 다양한 조선인 여성 인물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여타의 가족사연대기 소설이 아버지의 세계를 풍요롭게 그리면서 결국 대결에서 실패하는 아들을 그려내고 있다면,¹⁰⁾ 김사랑은 『낙조』에서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부조화의 세계로 그린다. 이는 그가 『낙조』를 집필하기 직전에 발표한 일본어 단편 「빛 속으로」의 주제의식과도 유사하다. 두 작품은 형식과 배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소년을 중심으로 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빛 속으로」에서 ‘야마다 하루오’가 조선/일본이라는 두 민족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면 『낙조』에서 윤수일은 친일적 양반(서울)과 저항적 민중(평양)이라는 상반된 계층·지역에 발을 걸친 인물이다. 그는 친일 양반 윤성효와 평양 기생 산월의 소생으로 평양에서 어머니와 단출하나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중 적장자를 병으로 잃은 윤성효의 뜻에 따라 서울에 오게 된다. 윤성효를 증오하면서도 그를 거역하지 못하는 산월은 아들 수일과 함께 서울에 오

9) 정하늬, 앞의 글; 임형모, 「알레고리로 읽는 전환기적 현실 - 김남천의 『대하』와 김사랑의 『낙조』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5, 국제한인문학회, 2008; 이동재, 「일제 말기 가족사연대기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의 형상과 성장의 문법 - 김남천의 『대하』, 김사랑의 『낙조』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49, 국제언어문학회, 2021.

10) 이해령, 앞의 글 참조.

지만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간다. 다만 아들 수일의 경우는 의외로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자유롭다. 소설 속에서 수일의 부모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속 호랑이와 어머니에 비유된다. 수일이는 아버지가 “불쌍한 어머니를 잡아 먹”을 인물임을 알아보고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내심 막연한 호의”를 품고 있다.¹¹⁾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살게 된 계동 본가 또한 그에게는 두려움과 평화가 공존하는 “동화의 세계”에 가깝다.¹²⁾ 소학교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특혜를 받을 것인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선생과 학교에 저항할 것인지 선택을 요구받을 때도 그의 갈등은 친구 순철이를 따라 ‘사상가’가 되겠다는 모호한 돌파구를 찾으며 비교적 손쉽게 해소된다. 교육을 위해 숙부의 집에 사는 동안 그가 돌아가고자 그리워하는 장소 또한 평양이 아닌 계동에 있는 윤성효의 본가다. 그가 계동의 본가를 안식처로 여기는 이유는 그곳에 어머니와 귀애가 있기 때문이지만 정작 그들이 집을 떠난 후에도 수일만은 계속 아버지의 집에 남아 있다. 그는 어머니의 동반 자살 시도, 순철의 평양행 권유, 귀애의 출분 등 주변 인물과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벗어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그들과 함께 떠난다는 선택지조차 고려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집에 기거한다.

소설에서 수일의 뒤편까지 정체성의 혼란을 감당하는 것은 어머니 산월이다. 그는 평양에서 “대성학교 출신들의 연설”을 들으러 다니면서 악정을 일삼았던 윤성효에 대한 증오를 품어온 인물이다.¹³⁾ 심정적으로는 평양의 ‘사상가들’에게 기울어져 있으나, 아들 수일로 인해 윤성효 일가에 속해있기에 괴리감 속에서 괴로워한다. 그는 수일이에게 “세상 사람이 윤가네를 저주한다. 그리고 너는 그 무서운 후손이란다.”라고¹⁴⁾ 말을 건

11) 김사량, 「낙조」, 『조광』 1940년 3월호, 114, 112면.

12) 김사량, 「낙조」, 『조광』 1940년 4월호, 104면.

13) 김사량, 「낙조」, 『조광』 1940년 6월호, 57면.

14) 위의 글, 64면.

네는데, 이는 사실 수일보다는 산월 자신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윤성효의 집안에는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여성 질서가 부재하며¹⁵⁾ 해주집의 투기와 모략 외에는 산월을 괴롭히는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어도 그의 신경쇠약은 거듭 심해지는데, 이는 산월 자신이 윤성효의 일가라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일파인 윤 남작 일가에 저주와 욕지거리를 퍼붓는 사람들이 늘고 급기야는 암살 시도가 일어나자 산월의 불안과 공포도 날로 심해진다. 수일 자신은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갈등하지 않음에도 그의 유년 시절이 삭막하고 두려운, 부조화의 세계로 그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버지와 자신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적대적인 주변 환경, 그리고 수일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계를 증오하는 어머니 산월의 존재가 그의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식민지 조선은 아들이 대적해야 할, 그러나 끝내 패배하게 될 아버지의 역사가 아니라 아들의 존재로 인해 고통받으면서도 그 모순을 껴안는 어머니의 역사가 된다. 『낙조』를 가족사연대기 소설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수일의 성격 형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김남천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¹⁶⁾ 이 작품에선 산월과 수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세대의 비극과 신세대의 성장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진다.

1918년 겨울, 끝내 잿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한 산월은 목숨을 부지하지만, “칠색 구름 속을 날아다니는 선녀”와 같던 모습을 모두 잃고 “입가는 시꺼멓게 타버리고 잇몸은 구실구실 썩어 떨어져” 있다.¹⁷⁾ 어머니 산월의 무서운 형상은 곧이어 벌어지는 3월 1일의 사건과 직접 연결된다.

15) 윤성효의 정실은 이미 죽은 지 오래이며 적녀인 금순이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첩들의 아귀다툼을 피해 두문불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성효의 첩인 해주집은 윤성효의 처남과 공공연하게 정을 통하고 김천집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난 딸을 데리고 오는 등 윤성효의 집안에는 유교적 위계랄 만한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16) 김남천, 「동태와 업적」, 『조광』 1940년 12월호, 103면.

17) 김사량, 「낙조」, 『조광』 1940년 7월호, 137면.

소년 수일에게 3월 1일의 밤은, “폭풍우, 눈보라, 홍수, 파도, 벽력, 우박” 처럼 이유 없이 몰아치는 재해와 같다.¹⁸⁾ 그러나 그에게 “군중의 흩어지는 그림자. 아우성. 폭풍우”와¹⁹⁾ 같은 집단적 형상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한 인간의 얼굴로 남는 기억은 바로 “시든 약초”처럼 산산이 헤어진 머리칼, 파리한 뺨, 유향색 피부를 한 어머니, 산월이다.²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던 산월이 마침내 윤성효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죽게 되는 날이 다름 아닌 3월 1일 밤이라는 점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윤성효 일가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의 희생자가 되는 대신 윤성효를 증오하는 또 한 명의 민중으로서 죽기를 감행한 것이다. 산월은 내적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을 택했다는 점에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집안과 식민지 조선에 도사린 모순을 어렵פות이 이해하게 된 수일에 의해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 제안된다. 산월을 희생자라 말하는 귀애에게 수일은 “우리 어머니는 제 손으로 용감하게 죽었어.”라며 그녀의 죽음을 새롭게 의미화한다.

이후 귀애와 수일은 산월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민하며 점차 윤성효 일가의 “무서운 죄악”을 이해하게 된다.²¹⁾ 당시는 제2차 러시아혁명과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 그리고 파리강화회의가 연달아 일어나던 시기로, 조선에서도 차츰 정치와 경제에 “새로운 눈”을 뜬 세대가 늘고 있었다.²²⁾ 수일보다 한발 앞서 “시대의 발소리”와 “사회의 호흡”을 들을 수 있는 여학생으로 자라난 귀애 또한 이러한 흐름에 몸을 맡긴다.²³⁾ 그녀는 여학교를 졸업한 후 상해에서 유학한 후에 윤성효 일가에서 벌어진 일들

18) 김사량, 「낙조」, 『조광』 1940년 8월호, 148면.

19) 위의 글, 147면.

20) 김사량, 「낙조」, 『조광』 1940년 7월호, 132면.

21) 김사량, 「낙조」, 『조광』 1940년 11월호, 298, 302면.

22) 김사량, 「낙조」, 『조광』 1940년 6월호, 52면.

23) 김사량, 「낙조」, 『조광』 1940년 11월호, 296면.

을 소설로 써서 사람들을 계몽하겠다고며 포부를 밝히기도 한다. 이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윤성호 집안을 떠나면서도 귀애는 수일에게 학문은 어떠한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며 두 사람 모두 학식을 같고 닦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낙조』는 이후 자신의 가계에 비판의식을 갖추게 될 수일과 귀애가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그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쉽게도 두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를 그려내지 못하고 연재를 중단한다. 작가는 새로운 시대의 품에서 자라난 수일과 귀애를 통해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조선 사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물으려 했으나 답을 내리지 못하고, 약 반년 후 발표한 일본어 소설 「향수」에서 그 나름의 답을 제시한다.

3. 조선의 신세대 논쟁과 ‘향수’라는 응답

조선의 평단은 1940년 한 해 동안 “신세대론의 뒷수습”을 했다는 김남천의 지적처럼 이 시기엔 신세대론을 소설화한 작품이 연달아 발표된다.²⁴⁾ 세대론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소설로는 “세대론의 작품화”라고 평해지는 백철의 「전망」(『인문평론』 1940.1)과 신세대 작가의 대표 격이랄 할 정비석의 「삼대」(『인문평론』 1940.2)를 들 수 있다. 더 넓게 보자면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조선일보』 1939.08.01.~1940.03.03.)도 이에 속한다. 이들 작품은 공통으로 혁명 운동의 생명이 다했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사상과 건강을 잃고 퇴폐적인 생활 끝에 자살 혹은 실종을 택하는 구세대를 그렸다.²⁵⁾ 김사량의 「향수」 또한 이들 작품과 마찬가지로 중일전

24) 김남천, 「동태와 업적」, 『조광』 1940년 12월호, 110면.

25) 백철의 「전망」은 이와 같은 구세대의 전락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에 따르면, 중일전쟁이 격화되면서 조선에도 시시각각 “한 시대를 짓밟고 넘어가는 말굽소리”가 전해지자, 거리를 지배하는 삼엄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 앞에 펼쳐지는 “역사적인 광

쟁으로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방황하는 구세대의 모습을 그리면서 세대론의 문제의식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향수」는 신세대론을 반영한 조선의 작품들과의 연관에서 읽히지 못했으며 전향자들의 협력 혹은 저항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해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김사량의 「향수」는 일본의 문예지 『문예춘추(文藝春秋)』 1941년 7월호에 발표한 작품이다.²⁶⁾ 중일전쟁 와중이자 고노에 수상이 동아신질서 구상을 발표하기 약 반년 전인 1938년 5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은 도쿄 A대학의 미학연구실에 재직하는 27살의 청년 ‘현’이 3·1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누나 부부가 북경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지나(支那) 고미술 시찰’을 명목으로 그들을 만나러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현이 여행을 떠나기 전 노환의 어머니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딸 ‘가야와 사위 ‘윤장산’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편, 그들의 외아들인 ‘무수’만이라도 고향에 데려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한다. 북경에 도착한 그는 어렵지 않게 누나 가

경”에 들뜬다(『인문평론』 1940년 1월호 210면. 이하는 면수만 표기). 그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쟁에의 실감 앞에서 정열과 흥분을 느낄 수 없었던 지식인 ‘김형오’는 시대의 낙오자가 되어 버렸다고 느낀다. 시대와 현실에 패배하고 무력한 생활을 계속하던 그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중국인 여성 ‘주미래’와 만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공상을 품게 되나, 그녀가 향수에 휩쓸려 허무하게 죽어버리자 상심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즉 「전망」은 조선의 지식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을 “불행한 운명”에 처한 두 민족의 일원이자 “한 시대의 상층 [정](225)으로 제시한 직후, 이들을 “동양의 그 사변”(230)이 불고 온 강력한 몰살에 휩쓸려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끔 처리하고 있다. 김형오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존재는 “새 시대를 상층(정)한 생(생)의 약동”이라 소개되는 그의 아들 ‘기영’이다. 작중 화자는 과학에 천재(天才)를 드러내는 소년 기영을 “태양과 같이 황홀”하고(234) “찬란한 존재”라고 찬미하며, 그에게 “열광적인 연정”마저 드러낸다(235).

- 26) 김사량은 일본어 소설 「향수」를 『文藝春秋』(1941.7)에 발표한 후 약간의 개작을 거쳐 소설집 『故郷(고향)』(甲鳥書林, 1942.7)에 수록했다. 본고는 『文藝春秋』에 발표한 원고를 저본으로 한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소설선: 1940-1944』, 역락, 2007을 인용했다. 인용 시에는 본문에 직접 페이지를 표시한다. 『故郷(고향)』 수록본은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1, 역락, 2008에 수록됐다. 개작에 관한 논의는 곽형덕, 「김사량작 〈향수(鄉愁)〉에 있어서의 ‘동양’과 ‘세계’ - ‘전향’의 전제 조건을 둘러싸고, 『현대문학의 연구』 5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를 참조.

야와 재회하나, 20여 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과거의 교결(皎潔)한 모습 대신, “마른 고목”처럼 검고 깡마른 얼굴이다(26). 쇠락한 여성과 3·1운동의 이미지적 결속이 「향수」에서도 반복되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녀는 “망명객의 철의 규칙”을 어기고 아편 밀매로 “지나인의 피를 빨아먹”는 “고뇌와 죄악에 찬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38). 명망 있는 혁명가였던 윤장산 또한 시시각각 복잡해져 가는 “동아의 사태” 안에서 방향을 잃고, 부하의 아내와 애정의 과오를 범하는 등 “사상적 파탄”을 겪는다(36). 옛 혁명가들의 전락을 비롯이라도 하듯, 두 사람의 외아들 윤무수는 일본군 통역병으로 지원하여 산서성(山西省)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들의 선택으로 인해 고된 망명 생활을 지탱하던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지자, 가야는 극심한 자기상극(自己相克)으로 인해 정신과 육체가 모두 황폐해진다.

현은 누나에게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함께 고향에 돌아가 새로운 생활을 꾸리자고 거듭 제안하나 가야는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고 말하며 체념과 무기력으로 일관한다. 이튿날 현에게 북경 주변을 안내해주던 가야는 외국인에 의해 여러 조계(租界)로 갈래로 찢어진 자금성 주변과 “지체 높은 금원(禁苑)”조차 지난날의 영화를 잃게 만든 “역사의 힘”에 쓸쓸함을 느낀다. 먼 이국땅에서 슬픈 동질감을 느끼며 잠시나마 “옛날의 다정다한 했던 마음”을 회복한 그녀는 자연스레 평양의 풍경과 가족을 떠올리게 된다. 이 대목에서 가야는 처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를 내비친다. 그러나 먼발치에서 접근해오는 일본 군인들의 등장으로 장면은 갑작스럽게 전환된다. 돌연 공포와 당혹에 휩싸인 가야가 현의 애타는 부름에도 답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도망친다(41).

그때 그의 눈에는 벤치를 떠나 화나무 숲 쪽으로 아주 빠르게 도망치는 푸른 지나 옷차림의 누나가 언뜻 보였다. 현은 더욱 놀라 튀기듯이 뛰어났다.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토와 내지어로 이야기를 주

고반던 참이라 뜻하지 않게, 그것은 내지어였다. 게다가 그는 지금 자가 내지어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말은 모르지만 동생의 큰 목소리에 누나는 화살 박힌 듯이 되어 한 번 뒤돌아보았다. 바로 그때 이토 대위가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외치면서 현 쪽으로 달려온다. 그것을 보자 가야는 드디어 망상의 공포에 사로잡혀 숲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43~44)

정신없이 도망치는 누나에게 현이 저도 모르게 ‘내지어’로 소리치는 부분은 「향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장면 중 하나다. 이는 주로 식민지 출신 작가 김사량이 겪는 이중언어적 환경과 결부되어 논의됐으나, 본고는 그가 일본어로 소리치며 일본 군인이자 막역했던 고등학교 동창 이토(伊藤) 소위와 함께 누나를 뒤쫓는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²⁷⁾ 이 작품에서 이른바 신세대라 할 수 있는 이현과 윤무수는 언제든지 변신(變身)할 가능성을 내포한 피식민자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중일전쟁에 유독 ‘반도인’ 통역가가 많다는 작품 내 서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윤무수를 비롯하여 중국, 만주에 진출한 많은 조선인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피식민자적 트랜스내셔널리티를 제국 건설을 이바지하는 데 활용했다. 이는 비슷한 시기 한설야가 발표한 중편소설 『대륙』(『국민신보』, 1939.6.4.~9.24.)이 만주를 그려내는 방식과 대조적이다. 이 작품은 ‘대륙’을 “사랑을 위해 싸우고”, “민족적 편견과 맞서 투쟁”하는 곳, 즉 민족 화합을 위한 멜로드라마적 공간으로 재형성해 트랜스내셔널리티의 무화를 꾀한다. 반면 「향수」에서 김사량은 일본인으로 화(化)한 동생을 격렬히 거부하는 누나 가야의 모습을 통해 결코 화합에 이를 수 없는, 끝없이

27) 이양숙은 이 장면이 동아시아의 여러 언어가 각 민족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가능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언어가 민족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자기는 조선의 고유한 문화를 증명할 수 있는 상징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양숙, 「일제 말 북경의 의미와 동아시아의 미래 - 김사량의 「향수」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202면.

불화하는 존재들을 그리고 있다. 「향수」는 김사량이 자신의 대표작 「빛 속으로」를 ‘내지인용(内地人向き)’이라 평하며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털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쓴 일본어 소설이라는 점 또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²⁸⁾

차마 누나를 따라가지 못하고 홀로 골동품 거리를 방문한 현은 그곳에서 뜻밖에도 고려청자를 발견한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한줄기 잔광을 받으며 방안 가득 푸른 그림자를 만들어내던 청자를 보며, 현은 자신을 구해달라는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 소리가 마치 “누나의 신음소리”, “누나가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처럼 느껴져 그는 어머니가 가야에게 전해달라며 건넨 삼백 원을 주고 청자를 구매한다. 그 날 저녁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은 현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누나에게 함께 재출발할 방도를 찾아볼 테니 절대 절망해선 안 된다고 당부한다. 가야는 현을 외면하고 그와의 대면조차 피하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는 동생을 전송하기 위해 기차역을 찾아와 손수 차표를 끊는다. 현은 차표를 사는 데 쓰인 돈이 모두 “아편 소매를 통해 쿠리나 인력 거꾼, 순경, 부랑인, 거지 등으로부터 피와 함께 쥐어 짜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누나에게서 차표를 받아든다.

“나는 이 차표로 돌아간다. 내 몸속에도 이 차표 값만큼 지나인의 피가 녹아 들어와 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훌륭한 동아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한 번 더 누나와 매부를 위해 다시 오자. 이제는 누나와 매

28) 김사량은 대만인 작가 룡잉종(龍瑛宗)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의 말(よその言葉)’로 글을 쓰는 작가로서 친밀감을 드러내며, 그에게 「빛 속으로」가 ‘내지인용(内地人向き)’ 작품이며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두렵다고 전한다. 편지의 하단에는 2월 8일이라는 날짜만 쓰여 있으나, 해당 편지를 번역 및 소개한 황호덕은 1941년에 쓰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편지의 전문 및 두 식민지 출신 작가의 교류가 지니는 의미에 관해서는 황호덕, 「제국 일본과 번역(없는) 정치 - 루쉰·룡잉종·김사량, 『阿Q적 삶과 주권』, 『대동문화연구』 6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을 참조할 것.

부 차례다.” (63)

주인공 현은 작품 내내 제국 일본의 영향 아래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목하고 있으나, 작품 후반부에서 그러한 연민과 공감의 정서가 “훌륭한 동아인의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결심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 마지막 문장으로 인해 「향수」는 ‘대동야’라는 제국 일본의 프로파간다를 선전하는 친일 협력적인 작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인공이 식민지 민중의 고통에 연민을 보이며, 조선의 전통적인 문화를 보존하려 한다는 점에서 저항적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는 분석이 뒤를 이었다. 김사량의 일본어 소설이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이뤄진 친일 문학 재평가의 맥락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향수」 또한 작품 속 인물들이 “전향을 거부”한다고 평가한 오다 마코토의 주장과²⁹⁾ 이 작품이 시국 협력적 글쓰기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김철의 주장³⁰⁾ 사이에서 진동해왔다. 이외에도 김사량의 북경 체험을 담은 수필(「북경왕래」, 「에나멜 구두의 포로(エナメル靴の捕虜)」)과의 상호 텍스트성을 규명하거나, 「향수」에 나타난 기독교적 모티프를 살펴보거나 아편 중독자 형상을 분석하는 등 「향수」는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³¹⁾ 그러나 「향수」를 이 시기 조선 문단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신세대 논쟁과의 연관 속에서 읽은 경우는 찾기 어렵다. 1930년대 말 조선 문단에서 모색되었던 장편소설 창작론인 가족사연대기 소설 형식과의 연관에서 검토된 『낙조』의 경우와는

29) 오다 마코토(小田實), 「어떤 부정하기 힘든 힘 - 김사량의 「향수(鄉愁)」,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1, 역락, 2008.

30) 김철, 「두 개의 거울: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 - 장혁주와 김사량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2006.

31) 곽형덕, 앞의 논문; 모지현, 「내셔널리즘을 횡단하는 ‘비(非)국민’의 시선 - 김사량의 「향수」에 나타나는 아편 중독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7, 한국문학회, 2024; 이경재, 「김사량의 「향수」에 나타난 세 가지 향수(鄉愁)」, 『현대문학의 연구』 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임경순, 「김사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과 의식」,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상반된다.

신세대론은 1939년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김사량이 「향수」를 발표한 시기에도 아직 그 열기가 남아 있었다. 주요 논자였던 유진오는 「순수에의 지향」에서 30대 작가와 신인 작가는 연령상 동년배거나 많아야 10년 정도의 차이를 가졌을 뿐임에도 서로 언어가 통하지 못한다며, 조선 문단에서 “언어의 불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 문제가 “불과 수십 년 동안에 급각도로 전환된 세상의 문단적 반영”이며,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1939년 사이에 발생한 급격한 정세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보았다.³²⁾ 서인식 또한 “몇 해 사이에 문단의 배경을 이루는 시대의 정신적 분위기와 사상적 경향은 엄청나게 변질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³³⁾ 이는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공통 감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대론은 김동리가 「순수'이의」(『문장』, 1939.8) 등을 발표하면서 기성과 신세대 중 어느 쪽이 문학의 순수성을 담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흘렀으나, 이후 유진오가 「대립보다는 협력을 요망」(『매일신보』, 1940.2.23.)에서 신세대 작가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인문평론』은 1940년 2월 ‘신세대특집’을 마련하고, 역사의 전환 기인 지금, “신질서를 건설할 운명에 있는 신세대의 등장이 요망”된다며 신세대 논쟁의 재점화를 시도했다.³⁴⁾ 이들이 강조하는 새로운 질서가 동아신질서 구상을 위시한 “소위 신체제의 야합을 암시”한다는 지적을 부정하긴 어려우나,³⁵⁾ 『인문평론』에 연달아 게재된 백철의 「전망」, 정비석의 「삼대」는 더욱 섬세한 독해가 요구된다. 각각 기성 문인과 신진작가의 소설로 구분되고 있으나 두 작품은 모두 혁명 사상과 지식의 무력(無力)을

32) 현민(玄民), 「순수에의 지향 - 특히 신인작가에 관련하여」, 『문장』 1939년 6월호, 135~136면.

33) 서인식, 「세대의 문제」, 차승기·정종현 편, 『서인식 전집』 2, 역락, 2006, 121면.

34) 권두언 「신세대론의 진의」, 『인문평론』 2권 2호, 2~3면.

35)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366면.

철저히 되새기며 퇴폐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세대를 뒤로하고, 그들의 빈 자리를 채울 신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세대들은 건실한 직업과 명량한 사고방식을 갖췄으며 전쟁이 가져다준 대중적 열광에 거리낌 없이 동참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구세대를 조소하고 동정하며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신세대론을 중일전쟁 시기의 사상사적 맥락에서 읽는 김철의 독법에 따르면 핵심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세대론의 영향 아래서 쓰인 소설 작품을 거론하며, “구세대의 무력감을 구원해줄 신세대”에 대한 기대와 대망(待望)에 있다고 지적했다.³⁶⁾ 즉 신세대론은 기성과 신진 사이의 세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도, 오히려 혁명 사상의 세례를 받았으나 급변하는 세대 속에 정열과 이상, 전망을 잃어버린 구세대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가깝다.

김사량은 「향수」에서 “전향의 고통”에(35) 몸부림치는 망명객들의 입을 빌려 의도적으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비슷한 요지의 발언을 반복한다. 그는 이전부터 조선 문단의 문학론적 탐색에 동참해왔으며, 일본에서도 조선의 문학 동향에 관한 글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일본에서 발표한 한 평론에서는 김사량은 조선의 문학에 제재와 내용의 갱신이 필요하며, 늘 반복되는 인물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³⁷⁾ 이로 볼 때 「향수」 또한 일본의 매체에 발표했으나, 조선의 세대론을 의식하면서 내놓은 하나의 응답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주제의식은, 과거 윤장산을 따랐으나 이제는 일제의 특무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 ‘옥상렬’의 발언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가야의 집에 머물고 있던 현을 찾아와 자신의 전향 이유에 공

36) 김철, 「우울한 형/명량한 동생 - 중일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164면.

37) 김사량, 「조선문학풍월록」,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량,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288면.

감해주길 바란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옥상렬은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특무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던 말입니다!아 이걸로 됐어, 이제 이걸로 됐어요, 나는 무턱대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당신에게 그것을 말해 버렸으니 그것으로 이제 됐습니다.

“당신들은 새로운 시대에 태어나, 새로운 사고방식 밑에서 자랐소. 그리고 당신들의 고뇌의 방법은 무언가 우리들의 그것과는 온통 반대인 것 같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나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하고 말하면서 그는 또 일어났다. 그리고 차츰 또 열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사상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뒤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웠습니다. 처음에 나는 단지 우리들의 방법이 반도인을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꿈은 너무나도 무참하게 계속 배반당할 뿐이었습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나 우리들이 쫓겨나 갔던 때부터 나의 생각은 차츰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일본 군대의 위세 좋은 행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 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반도인을 위해 과연 어떤 길이 옳을까 하고 다시 비참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겨우 당신들의 사고방식에 도달했습니다. 이 옥상렬,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 아니, 나는 훨씬 젊어진 것입니다!”하고 외치며 그는 손을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어려 있었다. (35)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신체제에서 전망을 잃었으나 나름의 방식으로 조선을 위하여 하는 구세대 인물의 전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아가 구세대의 ‘우울’을 강력히 표상한다면, 옥상렬은 세대론의 담론을 더욱 직접적으로 발화한다. 그렇다면 옥상렬을 비롯한 구세대가 좇으려 한, 신세대가 건설해나갈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질서란 무엇인가. 이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변화해나가는 동아시아 세력 균형 속에서 조선의 역

할과 위치에 관한 물음과 그 답변을 필연적으로 포함해야 했다. 신세대 논쟁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타자의 등장과 더불어 변화하는 제국 일본의 대식민지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담론 공간으로도 기능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택한 담론적 실천 중 하나는 “일본이 수행하는 개발과 침략과 동원에 (과잉) 편승”하여 조선인의 지위 향상을 꾀하는 것이었다.³⁸⁾ 이들의 담론에는 “침략당하면서 저항하는 중국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며,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침략당할 필요가 있음을 긍정”하는 데 이르기기도 했다.³⁹⁾

급속한 체제 변화 안에서 방황하던 옥상열이 도달한 길 또한 “우리 동아의 대지”에서 “비극적인 사변”이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제국 일본에 협력하는 것이었다(38). 그는 여전히 “수백만의 동포”와 ‘지나인’의 신음에 함께 번민하기에, 그들의 고통을 연장한 “그따위 혁명 운동에 피침(血唾)을 뱉고” 차라리 “지나 대륙의 명랑화”를 위해 진력하는 쪽으로 생활과 정신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57). 그러나 자력으로 자신의 선택을 승인할 수 없기에, 그는 “새로운 시대에 태어나, 새로운 사고방식 밑에서”(34) 자란 현에게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으며 다만 “사고방식을 전진시킨”(38) 결과였음을 인정받으려 갈구한다.

이 지점에서 「향수」는 백철의 「전망」, 정비석의 「삼대」 등과 다른 길을 택한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구세대가 자살이나 실종으로 세상과의 연결을 단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면, 김사량의 「향수」 속 전향자들은 자기모순으로 인한 정신적 파산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친다. 구세대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멀찍이서 바라보는 데 그치는 작품들과 달리, 「향수」는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구세대와 그들을 ‘구원/배반’하려는 신세대의 마주침에 주목한다. 이 작품이 배반과 전략의

38) 차승기, 앞의 글, 284면.

39) 위의 글, 272, 284면.

서사로 마치는 대신, 가야 부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결심과 감격으로 마무리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은 현이 가야를 북경에 남겨둔 채 홀로 조선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치지만, 현이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져가는 고려청자는 푸른 지나웃을 입은 누나와 동일시되며 그녀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쓸쓸하고 약한 물건입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억눌리고 숨이 막혔었습니까. 우리는 역시 우아 순정하고 슬픔 많은 반도인들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눈으로 따뜻하게 지켜보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으로 어떻게든 돌아가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데려가 주세요.”

“아. 좋고말고, 좋고말고. 데리고 돌아가고말고. 너희들은 우리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의 애정이 필요해. 반드시 그럴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하고 현은 웬지 또다시 넘쳐 나오는 눈물을 삼키면서 소리쳤다. “슬프게도 나에게는 지금 누나와 매부를 모시고 돌아갈 힘은 없어. 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자, 우선 지금부터 너희들과 함께 돌아가는 거다, 돌아가는 거야!” (61)

이 작품은 고려청자라는 과거의 잔존물을 매개로 하여 길 잃은 옛 혁명가들을 역사적 침묵에서 끄집어내고 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하여 고려청자의 호소와 외침이 현에게 닿는 것이다. 이로써 가야는 “희망과 정열에 불타” 사립학교를 경영하며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았던(21) 고향 조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얻게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 작품이 결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되돌리겠다는 회고주의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수」는 괴로운 길을 택한 옥상렬을 연민의 시선으로 그려내면서도 그가 ‘고향/조선’에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맹렬한 향수”를 느끼면서도 귀향이 “평생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58) 확신하기에 조선으로 돌

아기는 이현에게 헤어진 가족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전해달라 부탁할 뿐이다. 즉 이 작품에서 ‘향수(鄉愁)’란 아무것도 훼손되지 않은 과거로 돌아가야 함을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과거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느끼게 되는 애수의 감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수」가 조선인 작가가 중국을 배경으로 쓴 일본어 소설이라는 복합성을 띤 작품이라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신세대론을 소설화한 작품들이 대부분 중국(인)을 가상/스펙타클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조선(인)의 위치를 확보해 온 것과 달리, 「향수」는 중국(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다. 특히 가야의 아들 윤무수와 동생 이현이라는 상반된 유형의 신세대 인물이 중국을 대하는 조선인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아들 윤무수는 혁명가들이 겪게 된 전략의 한 예시 정도로 취급되어왔으나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 일본군에 지원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32). 윤무수는 옥상렬과 마찬가지로, 부모를 비롯한 조선(인)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일본에 협력을 택했으며, 그 선택의 결과로 자신이 나고 자란 중국을 희생시킨다. 이현은 윤무수와는 다른 길을 택하는데, 그는 시국 협력적인 개념인 ‘동아’를 수용하면서도 그 주체화 경로를 재설정하고 있다. ‘동아’를 호명하면서 그를 구성하는 면면들로 중국인 “쿠리나 인력거꾼, 순경, 부랑인, 거지”들과 타지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는 조선인들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누나 가야가 ‘지나인’을 배반한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는 대신, 그들을 배반하여 벌어들인 “몽강권(蒙疆券)이나 법폐(法幣), 만주권(滿洲券), 연은권(聯銀券)”을 받아들인다(62). ‘지나인의 피’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의 길로 상정하는 현의 태도에서 드러나듯, 「향수」는 이들에게 순수한 과거의 상태로 복귀하는 대신, 모든 역사와 상처를 안고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결말에서 이현이 언급하는 “훌륭한 동아의 한 사람”은 이처럼 비천하고 훼손된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4. 나가며

본고는 지금까지 김사량의 조선어 장편 『낙조』와 일본어 단편 「향수」가 창작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매개로 한 세대론적 성찰이라는 공통된 지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두 작품은 중일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변기에 3·1운동의 기억을 소환하여 과거와 현재, 구세대와 신세대의 문제를 다룬다. 『낙조』에서 김사량은 기존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아버지 중심 서사를 벗어나 어머니 산월을 통해 식민지 현실의 모순을 형상화했다. 이 시기 가족사연대기 소설들이 유년을 풍요로운 세계이자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김사량의 『낙조』는 어린 시절을 삭막하고 두려운, 부조화의 세계로 그린다. 불화(不和)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산월의 죽음은 구세대의 비극적 결말을 의미하는 동시에, 신세대인 수일과 귀애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아들의 패배로 귀결되는 기존 서사와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향수」는 망명 혁명가들의 몰락과 이들을 구원/배반하려는 신세대의 모습을 통해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조선인이 직면한 현실을 형상화했다. 특히 이현과 윤무수로 대표되는 신세대는 피식민자적 트랜스내셔널리티를 활용하여 새로운 생존 방식을 모색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는 1940년 조선 문단의 신세대론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조선인 작가가 중국을 배경으로 쓴 일본어 소설이라는 작품 자체의 특수성을 통해 복합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아울러 『낙조』에서는 가족사연대기 소설 속 봉건적 가부장적 자리에 젊은 어머니를, 「향수」에서는 신세대 담론 중 형의 자리에 누이(혹은 젊은 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술자와 여성 인물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했다. 주목할 점은 두 작품 모두 쇠락한 여성과 3·1운동을 나란히 놓고 있다는 점이다. 두 인물은 3·1운동을 삶의 전환점으로 경험했으며, 식민지 현실 속에서 정체성을 통합하지 못한 채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산월은 1919년 3월 1일 밤 윤성효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자살함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각인시킨다. 그녀의 죽음은 민중의 일원이자 민중의 배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으로서, 개인적 사건을 넘어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전환점과 맞닿게 된다. 가야 역시 3·1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망명 후 아편 밀매업자로 전락하며 혁명적 이상의 좌절을 체현한다. 산월의 죽음은 1910년대에서 192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단절을, 가야의 전락은 1930년대 중일전쟁 시기를 거치며 혁명적 이상이 전쟁에 대한 열광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반영한다. 두 인물은 시대의 격변 속에서 적응에 실패한 구세대의 전형을 보여주며, 신세대의 등장을 위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문장』, 『인문평론』, 『조광』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랑, 작품과 연구』 1, 역락, 2008.
김재용·곽형덕 편역, 『김사랑, 작품과 연구』 2, 역락, 2009.
이경훈 편역, 『한국 근대 일본어 소설선: 1940-1944』, 역락, 2007.

2. 단행본

- 곽형덕, 『김사랑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차승기·정종현 편, 『서인식 전집』 2, 역락, 2006.
홍중욱, 『민족과 혁명 - 식민지 사회주의의 이념과 실천』, 역사비평사, 2025.

3. 논문

- 곽형덕, 「김사랑작 〈향수(鄉愁)〉에 있어서의 ‘동양과 세계’ - ‘전향의 전제 조건을 둘러싸고」, 『현대문학의 연구』 5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권보드레, 「3·1운동과 “개조”의 후예들 - 식민지시기 후일담 소설의 계보」, 『민족문학사연구』 5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김철, 「두 개의 거울: 민족 담론의 자화상 그리기 - 장혁주와 김사랑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2006.
_____, 「우울한 형/명량한 동생 - 중일전쟁기 ‘신세대 논쟁’의 재독(再讀)」, 『상허학보』 25, 상허학회, 2009.
모지현, 「내셔널리즘을 횡단하는 ‘비(非)국민’의 시선 - 김사랑의 「향수」에 나타나는 아편 중독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7, 한국문화회, 2024.
이경재, 「김사랑의 「향수」에 나타난 세 가지 향수(鄉愁)」, 『현대문학의 연구』 5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6.
이동재, 「일제 말기 가족사연대기소설에 나타난 아버지의 형상과 성장의 문법 - 김남천의 『대하』, 김사랑의 『낙조』를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49, 국제언어문학회, 2021.
이양숙, 「일제말 북경의 의미와 동아시아의 미래 - 김사랑의 「향수」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5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이혜령, 「1930년대 가족사연대기 소설의 형식과 이데올로기」, 『상허학보』 10, 2003.

- 임경순, 「김사량 문학에 나타난 중국 체험과 의식」,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 임형모, 「알레고리로 읽는 전환기적 현실 - 김남천의 『대하』와 김사량의 『낙조』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5, 국제한인문학회, 2008.
- 정하늬, 「1940년 전후 가족사 소설의 세대론적 고찰 - 한설야의 『탑』과 김사량의 『낙조』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4),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차승기, 「추상과 과잉 - 중일전쟁기 제국/식민지의 사상연쇄와 담론정치학」, 『상허학보』 21, 상허학회, 2007.
- 황호덕, 「제국 일본과 번역(없는) 정치 - 루쉰·룽잉쥙·김사량, '阿Q'적 삶과 주권」, 『대동문화연구』 6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Abstract>

Generational Reflections in Kim Sa-ryang's
Fictions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period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Setting Sun* and “Nostalgia”

Lee, Eunsol

This study examines Kim Sa-ryang's *The Setting Sun* and “Nostalgia” as works that recall the memory of the March 1st Movement during the turbulent Sino-Japanese War period. Both works reimagine colonial narratives through female protagonists and transnational identities, challenging simplistic binaries and offering a nuanced exploration of survival and agency in an era of violent transition.

Key words: Kim Sa-ryang, Sino-Japanese War, Family Chronicle Novel, discourse of “New Generation”, *The setting sun*(『낙조』), “Nostalgia”(『향수』)

투 고 일 : 2025년 5월 26일

심 사 일 : 2025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5년 6월 13일

수정마감일 : 2025년 6월 28일